

화학기업, 일하기 좋은 곳 “중간”

KMAC, SK이노 · LG화학 · GS칼텍스 포함 ... 삼성전자·SK텔레콤 1위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국내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조사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3월1일~6월13일 산업계 근무자와 HR 전문가 4204명을 대상으로 <2012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제조업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고 서비스업 부문에서 SK텔레콤이 1위에 올랐다고 8월20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4년 연속, SK텔레콤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포스코,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LG화학, GS칼텍스, 한국3M, LG전자, CJ제일제당, 웅진코웨이, S-Oil, 두산중공업 순으로 일하기 좋은 곳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SK텔레콤과 더불어 대한항공, 신한은행, 안철수연구소, 삼성에버랜드, 이마트, 국민은행, 삼성생명보험, 아시아나항공, KT, 신한카드, 삼성SDS, 현대카드·캐피탈, 삼성물산, 삼성화재해상보험 순으로 선정됐다.

확실한 비전과 정보 공유, 공정한 평가와 보상, 자발적·창의적 분위기, 구성원의 목표달성 노력 등을 평가했다.

김익성 KMAC 인사조직본부장은 “조사결과를 통해 국내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 및 경쟁력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8/20>